

말레이시아 거주 로힝야족 난민 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 주제 및 상징연구

**A Study of Themes and Symbols in Group Sandplay Therapy of
Rohingya Refugee Children in Malaysia**

이 세 화*
SeHwa Lee

장 미 경**
Mikyung Jang

This study analyzed the common themes and symbols expressed in group sandpictures of Rohingya refugees children who had fled from racial and religion oppressions in Myanmar and settled in Malaysia. A total of eight children who attended an international refugee school located in Kuala Lumpur, Malaysi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chool is under the auspice of the UN Refugee Agency. These children were given three group sandplay sessions of 90 minutes over a period of two weeks. The participants' sandpictures and comments during therapy were interpreted through an analytical psychological approach, after which the collected data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imilarities. Then the data was narrowed down, and themes that often arose in the sandpictures were categorized. As a result, five common themes were observed: destruction and death, ceaseless fighting, family members at risk, survival of the boat people, and the first step toward a normal life. The participants represented traumas they received, from the process of violent repression, evacuation, and adaptation to Malaysia, through direct linguistic expressions together with destructive and endless fighting sandpicture scenes. This study provided them with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traumas and psychological distress under a trust-based relationship amongst the group members and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they could bring changes into their lives.

Keywords : Rohingya refugee children, group sandplay therapy, symbols, themes, boat people

* 남서울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gginmandu@hanmail.net)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jangmiky@hotmail.com)

I. 서론

2017년 9월 미얀마를 탈출하기 위해 보트를 탔다가 보트가 전복되어 아동 10명, 여성 4명 최소 총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17). 수만의 로힝야족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이유로 쫓겨 목숨을 걸고 주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전체 인구의 2.5%(130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주류 세력인 버마족과 로힝야족 사이의 갈등은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박상익, 2017). 1982년 미얀마의 네윈 정부는 시민법 개정을 통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들은 전 세계에서 국가가 없는 민족 중의 하나로 모두 무국적자 상태에 처해있다(이서인, 2015; Human Right Watch, 2013). 2012년 여카잉(Rakhine)주에서 발생한 불교도와 로힝야족 간 폭력 사태 이후, 로힝야족은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수백 만 명이 이들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변국가로 유입하려 했으나 공식적으로 받아주지 않아 일부는 보트 위에서 어느 나라도 가지 못하는 이른바 보트비플(Boat People)이 되었다. 2016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 44,870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에 등록되었다(UNHCR, 2016). 미얀마의 비인도주의적인 무분별한 탄압으로부터 탈출한 로힝야족의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면서 불안, 수면장애, 심각한 PTSD, 자살시도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보였다(Equal Rights Trust, 2010).

이러한 난민들은 고국에서 독재적인 박해로 인한 폭력, 학대, 상실, 실직 등과 같은 잔혹한 경험으로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 결과로 이들은 불안, 우울, 심한 분노, 수면장애, 자살사고, 기억혼란, 주의력 결핍, 두통, 뒷목 당김과 같은 신체화 증상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Alayarian, 2007/2011; Ehntholt & Yule, 2006). 특히 난민 아동들은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아동의 본국에서 경험한 전쟁과 갈등, 직·간접적 폭력경험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잃는 경험을 하며,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분리, 사고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경험이다(Fazel & Stein, 2002). 이러한 경험은 난민 아동들에게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한다. 난민 아동 역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증상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대개 섭식 장애와 수면 장애, 분리불안 등의 퇴행적인 행동과 죄책감, 신체화증상, 타인 침범, 가족 구성원과 미래에 대한 공포증상, 행동문제(소리지리기, 울기, 물건 부수기 등), 과잉행동 등을 보이며, 청소년의 경우 약물 남용, 범죄, 폭력 등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Maršanić, Franić, & Ćurković, 2017). 또한 난민아동의 외상경험은 일부 우울과도 연관이 있으며(Thabet, Abed, & Vostanis,

2004) 수면문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행동 문제 등이 높게 나타난다(Urgulu, Akca, & Acarturk, 2016).

난민들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다. 난민캠프는 사람들이 몰려 신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비위생적이고, 종종 폭력적인 상황이 되어 기존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문제가 복합되는 경향이 있다(Bemak & Chung, 2017). 보호자에게 생존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동들은 보호자의 정신건강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Panter-Brick, Grimon, & Eggerman, 2014). Chung(2001)의 연구에 따르면 난민 집단원 중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나이 많은 난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사회적 및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21세 이하의 남성, 남편이 없는 여성, 성학대 피해 여성과 소녀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와 외상의 위험에 높다고 한다.

모래놀이치료란 모래와 놀이를 활용한 심리치료 기법으로 모래상자에서 모래와 물 그리고 여러 피겨들을 활용하여 상상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아동은 언어보다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특히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내담자의 외상 경험이 치료과정에서 이미지와 신체감각을 통해 표현된다(장미경a, 2017). 또한 ‘집단’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것으로(김춘경·정여주, 2002), 개인치료에 비해 사회적 기술의 연습, 카타르시스의 경험 및 자발성을 더 많이 증진시키고 아동 간의 치료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서문영, 2007).

따라서 모래놀이는 난민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Wirtz, 2009). ‘지금 여기에서’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자신의 외상경험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언어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Mancia, 2007). 또한 치료사와 집단원 간의 신뢰로운 관계 안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외상경험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접근은 난민 아동의 내적·문화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심리치료접근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들의 외상경험을 외현화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 아동들이 집단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외상경험을 들어냄으로써 갈등과 외상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정부의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 탈출하여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 아동들이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표현하는 공통적인 주제와 상징을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모래놀이치료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UN난민기구가 위치한 말레이시아 쿠알루푸룸에 거주하고 있다. UN난민기구 산하기관인 국제난민학교 중 로힝야족 아동으로 구성된 P학교에 재학 중인 11세-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PTSD 평가결과(CRIES-13)에서 PTSD 진단 가능성이 높은 17점 이상인 아동들을 선별하였다. 이후 보호자의 동의와 연구 및 촬영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남아 4명, 여아 4명으로 총 8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집단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무슬림이며, 가족들을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아버지가 먼저 말레이시아로 탈출하였다. 일정 기간의 분리 후에 나머지 가족이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사례들이다. 아동을 포함한 가족들은 탈출을 도와주는 브로커와 함께 보트를 타고 미얀마에서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인적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인 인적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CRIES-13 점수	특이사항
아동A	남	11	32	말레이시아에 태어났음. 아버지는 로힝야족, 어머니는 미얀마 무슬림. 말레이시아로의 탈출과정에서 둘째형이 사망했다고 보고함.
아동B	남	12	30	7살 때 7개월 동안 보트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왔음. 미얀마정부가 탄압하는 폭력적인 장면에서 노출되었음.
아동C	남	12	32	아버지는 미얀마무슬림, 어머니는 로힝야족. 5살 때 1개월 정도 보트를 타고 태국을 지나 말레이시아로 왔으며, 오는 도중 군인에게 쫓기거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목격함.
아동D	남	14	27	3년 전 보트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왔음.
아동E	여	11	33	5년 전 어머니 및 언니와 보트를 타고 7개월을 걸려 말레이시아로 왔음. 오는 도중 배 안에서 굶어 죽은 여자 두 명을 다른 남자들이 배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고, 외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또한 외할머니와 이모네 외는 태국에서 브로커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다시 미얀마로 돌려보냈음.
아동F	여	11	33	3년 전 임신 중인 어머니와 함께 보트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왔음.
아동G	여	12	17	아버지는 로힝야족, 어머니는 미얀마 무슬림. 5년 전 보트를 타고 어머니 및 언니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탈출 함.
아동H	여	12	31	아버지는 로힝야족, 어머니는 미얀마무슬림. 4살 때 2개월 동안 보트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왔음.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문화를 고려하여 집단원들을 동일한 성별로 나누어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각 2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모래놀이치료는 2018년 2월 2주 동안 90분씩 총 3회기를 현지 사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는 Dora Kalff가 제시한 ‘자유롭게 보호받는 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비지시적 접근으로 진행하려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2명씩 짝이 되어 번갈아가면서 개별모래상자를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평가를 위해 첫 번째 회기에서 아동용 사건충격척도(CRIES-13)를 활용하였다. 아동용 사건충격척도(CRIES-13)는 성인용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에서 발전된 아동용 사건충격척도는 13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0-65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PTSD 증상이 심각한 것이며, 17점 이상부터는 PTSD로 진단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30점 이상부터 PTSD 식별이 가능하다(Deeba, F., Rapee, R. M., & Prvan T., 2014).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와 미얀마어의 척도를 활용하였고, 연구진과 언어가 능통한 현지 코티네이터 혹은 통역사와 함께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첫 번째 회기에서 실시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결과, 6명의 참여자들이 PTSD진단이 가능한 수준이었다(CRIES-13 Total \geq 30). 그 중 일부는 PTSD증상 중 침습(과거의 사건이 현재 순간적으로 생생하게 떠오르거나 외상이 완전하게 재경험되는 것)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n=19$).

3. 자료분석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시작 전 연구 참여자와 개별면담과 그들의 담당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배경정보, 주소호 등 개인사에 대해 탐색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과 모래장면에 대한 언급을 연구자가 기록함과 동시에 동영상 및 모래상자 사진을 촬영하여 연구 참여자의 행동관찰과 그들의 모래장면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 아동들의 집단모래놀이치료의 주제 및 상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모래장면과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Jung의 분석심리학적 접근으로 신화, 종교, 동화 등과 같은 집단적 무의식 측면과 개인적 무의식 측면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해석하는 확장방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결과자료와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여 의미있게

다가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추상적이었던 연구 주제를 좁혀가며 관찰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Bogdan & Biklen, 200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중 로HING야족 난민 아동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를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부터 최종적 주제를 도출하기까지 질적 분석의 전 과정에서 어떤 전제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의 기존 인식, 믿음과 같은 주관적 인식에 대해 괄호로 묶고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3차원으로 연구 참여자의 면담, 행동관찰, 모래장면에 언급된 내용과 상징을 살펴보는 자료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이후 동료 모래놀이치료사 3인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하였다.

Ⅲ. 연구결과

말레이시아 거주 로HING야족 난민 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주제는 5개로 범주화되었고, 각 주제에 따른 모래장면과 상징은 아래와 같다.

표 2. 로HING야족 난민 아동의 주제와 내용

주 제	내 용
파괴와 죽음	무장한 경찰과 군인, 칼을 든 왕/여왕, 사람을 공격하는 뱀, 호랑이가 물거나 교통사고로 죽음
끊임없는 싸움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뱀 대 싸우는 카우보이, 총과 대포를 쏘는 군인나라 대 무기가 없는 가운데 나라, 그린히어로의 착한 팀 대 왕/여왕과 군인의 나쁜 팀,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와 내쫓는 소년
위험에 처한 가족원	납치당한 동생을 구출, 뛰쳐나온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들
보트피플의 생존	배를 탄 사람들을 공격하는 군인, 먹고 살기 위한 사냥과 바다의 위험, 국경을 지키는 군인으로부터 도피
일상생활의 첫걸음	울타리, 안전한 공간,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동차, 학교, 물건을 파는 사람

1. 파괴와 죽음

로HING야족 난민 남자 아동들은 군인과 경찰이 보호자가 아닌 공격자와 파괴자로서 일반인과 배를 탄 사람들을 총으로 겨누거나 동물을 공격하는 대상이었다. 특히 칼을 든 여왕과

띠를 두르듯 옷을 입은 왕이 모래장면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전통복을 입은 현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를 연상케 한다. 실제로 미얀마 정부에서 무장하는 군인과 경찰로 인해 많은 로힝야족 사람들과 미얀마무슬림 사람들이 죽거나 폭행을 당하였고, 이러한 장면은 동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어린 아동들까지도 노출되었다. 자신의 삶과 터전을 망가뜨렸던 경찰과 군인, 왕과 여왕은 파괴자인 동시에 심리적으로 난민 아동에게 보호와 질서가 회복해야 되어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로힝야족 난민 여아들은 대부분 간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뱀이나 호랑이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음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압도적인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던 파괴적인 외상경험들을 뱀, 호랑이와 같은 동물에 의한 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분노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를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원시적이고 전형적인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장미경b, 2017). 이처럼 내적세계에 파편적으로 자리 잡았던 외상경험을 외현화하면서 아동은 모래장면에서 자신이 선택한 상징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큰 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세계로 조작하면서 힘과 조절의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한다(Gill, 2006; Malchiodi, 2003).



그림 1. 아동 B. 1회기 모래장면

이 모래장면은 총이나 폭탄을 든 군인, 벼락을 날리고 있는 왕(제우스), 칼을 들고 오토바이를 탄 여왕은 활을 쏘고 있는 인디언, 고대인, 동물들을 공격하고 있다. 무장한 군인과 왕의 무리는 숲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다. 전쟁터는 가운데 공간이다. 실제로 로힝야족의 거주지였던 미얀마 라카인주는 과거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이 빈번했던 지역이었고 현재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된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사이에 위치한다.



그림 2. 아동 H. 1회기 모래장면

앞발을 들고 있는 호랑이의 공격으로 소녀의 어머니가 죽어서 모래상자 우측 하단에 묻혀있다. 죽은 어머니 옆에는 어미를 잃은 작은 공룡이 있다.

2. 끊임없는 싸움

트라우마에 간혀 버린 아동들은 자신의 외상을 겹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상상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정신적 유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의 외상이 신체적으로도 느끼는 미묘한 감각과 느낌에 대한 인지에서 내수용감각(interoception) 수준이 낮을수록 삶을 통제하는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Levine, 2008; Ogden, Minton, & Pain, 2006). 무슬림인 로힝야족 난민 아동들에게 미얀마의 종교적 탄압, 종족간의 끊임없는 싸움 속의 폭력, 죽음 등과 같은 과거의 외상경험은 그들의 상상력을 앗아가고 내적 세계의 안락함을 갉아먹으며 심리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난민 아동의 모래장면에서 나타낸 싸움이나 갈등은 그들의 외상경험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제하여 다루려는 시도도 의미한다. 아동의 모래장면에서 싸움이나 갈등의 주제는 심리적으로 에너지 방향과 긴장감을 나타낸다. 용에 의하면 견딜 수 없는 갈등은 삶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갈등이 정신의 자기조절 기능과 긴장 속에 묶여 있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삶을 증진하는 창조적 방향에 쓰일 수 있게 된다(장미경a, 2017).

난민 아동들의 모래장면에서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뱀 대 싸우는 카우보이, 총과 대포를 쏘는 군인나라 대 무기가 없는 가운데 나라, 그린히어로의 착한 팀 대 왕/여왕과 군인의 나쁜 팀,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대 내쫓는 소년 등으로 외상경험에 대응하는 세력 즉, 자아기능 회복을 시도하는 싸움이 등장하였다. 이 싸움의 장면에는 언덕이나 공간의

구분, 담장이나 울타리도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고 서로 다른 성격을 나누는 선과 안, 싸움의 영역과 안전한 보금자리 등을 구분하여 통제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모래장면처럼 첫 회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쓰러져있거나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울타리는 견고해지고, 구분하는 선이 등장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가 보였으며,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과 영웅이 등장하였다.



그림 3. 아동A 2회기 모래장면

이 모래장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측과 여왕, 왕 그리고 군인이 있는 좌측으로 나누어져있었는데, 좌측에 있던 집단이 넘어오면서 울타리가 무너지고 유일한 길에 화산 폭발도 일어났다. 계속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파괴되자 그린히어로와 동물들이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싸우고 있다. 녹색은 희망, 기쁨, 변화를 상징이며, 이슬람교에서 예언자 무하마드 일족의 색으로 성스러움을 의미한다(Cooper, 1978/2012). 아동A의 그린히어로는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구원자이자 선하고 신성한 영웅이다.

3. 위험에 처한 가족원

Beiser(2009)는 피난과정 중 직접적인 전쟁의 노출, 사망에 대한 취약성, 식량 및 물의 부족, 학대, 가족과의 강제 격리, 가족 또는 친구들의 살인 등의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종교적 탄압으로 탈출한 난민들의 피난과정은 자신의 삶에 혼란을 가져온다. 로힝야족 난민 아동들은 예외 없이 모래장면에 분리되어 위기에 처한 가족원들이 등장하였다. 미얀마에서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동의 아버지가 먼저 말레이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한 다음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미얀마에 있는 가족원들을 구출하여 말레이

시아로 데려온다. 그 과정 동안 난민 아동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 긴장감, 공포 등을 경험하였다. 그들의 모래장면에는 직접적으로 피난과정을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납치당한 동생을 구출, 뛰쳐나온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들로 표현하였다.



그림 4. 아동 B. 2회기 모래장면

이 모래장면은 납치된 동생을 구하는 내용이다. 우측 나쁜 팀 대장이 착한 팀 대장의 동생을 잡아갔다. 착한 팀 몇몇이 배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구출하러왔다. 나쁜 팀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하고 다리를 건널 때도 공격하지만, 무사히 동생을 구출해서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C는 “아빠가 경찰들한테 둘러싸여 돈을 뺏겨요 여자아이는 놀라서 아빠의 형제들 쪽으로 도망가요 아빠가 가족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걱정이예요”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언급하였다.



그림 5. 아동 C. 3회기 모래장면

4. 보트피플의 생존

연구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로힝야족 난민 아동들은 보트를 타고 미얀마를 탈출해서 말레이시아로 왔다.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굶어죽은 사람들을 보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나 배를 타고 있는 동안 총 또는 탱크로 위협을 받았거나 말레이시아를 지나 태국에 정박한 보트를 놓고 인근 숲으로 도망치는 등 심각한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겪었다. 특히 모래장면에서 보트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목소리가 흥분된 듯 격양되거나 손을 떨거나 모래를 계속 만지거나 손자국을 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 주제는 모래장면에서 배를 탄 사람들을 공격하는 군인, 먹고 살기 위한 사냥과 바다의 위험, 국경을 지키는 군인으로부터 도피 등으로 표현하였다. 난민들의 배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듯,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구제의 배이자 안전지대를 상징하며,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그림 6. 아동 C. 2회기 모래장면

좌측은 군인나라, 우측은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곳이다. 나무가 있는 중앙에 살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려는데, 군인들이 총과 대포를 쏘고 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어 마술사가 와서 사람들을 지키려고 한다. 실제로 아동C는 말레이시아로 오는 도중 군인에게 쫓기거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봤다는 것을 흥분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언급하였다.

아래 모래장면은 우측에는 미얀마 집에서 물과 간단한 음식물을 갈색 상자에 넣어 준비한 다음 중앙에서 브로커를 만나 보트를 타고 좌측에 있는 태국을 지나 말레이시아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좌측에 있는 무장한 태국 군인들을 피해 숲에 있다가 다시 보트를

타고 물만 마시며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모래상자에 손자국은 계속 이동하면서 긴박했던 순간들을 느껴지게 한다.



그림 7. 아동 G. 2회기 모래장면



그림 8. 아동 H. 3회기 모래장면

아동H는 7개월 동안 보트를 타고 바다를 떠돌다 말레이시아에 왔다. 그 과정에서 바다에 빠졌다가 아동의 어머니가 구해줬으며, 굶어 죽은 사람들도 보면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연속이었다. 아동의 모래장면에서는 좀비가 있는 우측과 음식과 일상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좌측의 대극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가운데 울타리를 친 영역은 상어와 물고기들이 가득한 바다로, 7개월 동안 살았던 위험했던 생존을 위한 과정을 보여준다. 아동은 파도 대신 폭포를 놓았다가 자신이 겪었던 보트피플의 위험했던 순간을 이야기하였다. 아동H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선생님이 있어서 고마워요”라며 언급한 다음 잔잔한 파도로 바뀌놓았다. 파괴적이고 삼켜버리는 부정적인 파도가 아닌 자신의 외상경험을 마주하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잔잔한 파도로 나타냈다.

5. 일상생활의 첫걸음

난민들은 가족들과 재회 한 이후에도 언어적 어려움, 식량난, 생활여건 악화, 의료 서비스와 정서적 지원과 같은 차별 등과 같은 외상과 스트레스는 지속된다(Strekalova & Hoot, 2008). 재정착은 혼란스러운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및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정신적 측면의 보상적 방식으로 본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와 자신의 보금자리의 소망은 당연한 것이다. 배를 타고 탈출한 새로운 세계는 탄압과 집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벗어나 재정착의 희망을 품은 공간이다. 무장한 군인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난민 아동들의 모래장면에서는 질서와 경계를 상징하는 울타리가 등장하고 안전한 공간,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동차, 학교,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아동 D. 3회기 모래장면

이 모래장면은 울타리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좌측 공간은 집과 학교가 있고, 그 옆에 세차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곳에 오기위해 사람들은 우측 작은 섬에서 배를 타고 왔다. 난민 아동의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자 또래와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공간이다. 언어는 새로운 세계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림 10. 아동 G. 3회기 모래장면

이 아동은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우측과 좌측에는 둘러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과거에 자주 했던 일들을 앞으로도 할 수 있길 빌었다. 중앙에는 사람들과 가구, 음식으로 가득 찬 우측과 빈약한 좌측을 연결하는 다리도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피난과정을 겪고 재정착 과정에 있는 난민 아동이 집단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상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미얀마 정부의 종교적 탄압으로 보트를 타고 탈출하여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 하고 있는 8명의 로힝야족 난민 아동이었다. 그들 모두 무슬림이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피난과정 속에서 학대 및 폭력, 죽음이나 부상을 목격하였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 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는 ‘파괴와 죽음’, ‘끊임없는 싸움’, ‘위험에 처한 가족원’, ‘보트피플의 생존’, ‘일상생활의 첫걸음’ 총 다섯 가지의 공통된 주제를 보였다. 외상 후 놀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놀이주제가 외상경험과 유사하게 충동적으로 반복된다는 연구결과(이영애, 2016; APA, 2013; Eth, 2001)와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래놀이치료가 외상을 겪은 아동이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트라우마를 외현화하여 내적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접근임을 알 수 있었다(Doyle & Magor-Blatch, 2017). 또한 이슬람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임으로 자신의 외상경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남아들보다 여아들은 사람을 공격하는 호랑이나 뱀과 같이 간접적 표현을 하였다. 이에 난민 아동의 외상경험에 대한 표현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장미경b, 2017; Maharatta et al., 2017; Sharma et al., 2010). 연구 참여자들은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자

신이 몰랐던 바람과 욕구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활성화가 멈춘 정신적 유연성인 상상력이 재가동되어 일상생활의 복구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난민 아동들의 얼굴표정이나 태도에 작은 변화가 보였다. 첫 회기에서 말을 하지 않거나 눈맞춤이 짧고, 다른 또래를 때리려하거나 다리나 손을 떠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롭고 안정한 치료실 안에서 치료사의 경청적 태도 또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자신에 대해 개방하게 되면서 집단원에게 집중하거나 함께 나누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고통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고 전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난민 아동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외상경험을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려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여 모래상자에 내적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경험한 외상을 치료적 거리감을 두고 지금-여기에서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외상과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측면에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아동이 집단 간 관계를 경험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모래놀이치료가 미얀마를 탈출하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 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난 주제를 범주화했다는 점과 그들 자신의 감정 인식과 타인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각자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난민 아동의 외상경험에 대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의 기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난민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접근의 절실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와 짧은 연구기간으로 말레이시아 거주 로힝야족 난민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그들의 개인 발달사 및 가족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춘경, 정여주 (2002). 상호작용놀이를 통한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박상익 (2017년 9월 10일). 학살 피해 미얀마 탈출하는 로힝야족...무슬림 탄압에 들끓는 이슬람권. 한국경제. 2017년 9월 6일 검색,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1024591>
- 서문영 (2007). 집단놀이치료에 의한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 존중감, 정서적 부적응과 이혼지각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17년 9월 28일). 로힝야족 보트 난파로 아동·여성 최소 14명 사망. 연합뉴스. 2017년 9월 6일 검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

28235500085.HTML?input=1195m

- 이서인 (2015). 로힝야족의 비극 - 역사적 관점에서 본 갈등과 박해의 원인 -. 청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애 (2016). 놀이치료 과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외상 후 놀이특성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9(2), 335-362.
- 장미경a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장미경b (2017). Archetypal symbolism in the recovery process from natural disaster: Sandplay therapy of Nepal earthquake adolescent survivors.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8(2), 1-22.
- Alayarian, A. (2007). *Resilience, Suffering, and Creativity - The work of the Refugee Therapy Centre*. London: Karnacbooks. 김현아, 최대현, 김규식, 조용태 (2011). (역). 난민치료센터 상담중심의 트라우마 회복탄력성과 상담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 C., London Englan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eiser, M. (2009). Resettling refugees and safeguarding their mental health: Lessons learned from the Canadian refugee resettlement project. *Transcultural Psychiatry*, 46, 539-583.
- Bemak, F., & Chung, R. C. Y. (2017). Refugee trauma: Culturally responsive counseling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5(3), 299-308.
- Bogdan, R. C., & Biklen, S. K. (2006). Qualitative research in (validation) and qualitative (inquiry) studies. In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5th ed.). Boston: Allyn & Bacon.
- Chung, R. C. Y. (2001). Psychosocial adjustment of Cambodian refugee women: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2), 115-126.
- Cooper, J. C. (1978/2012).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New York: Thames & Hudson. 이윤기 (2012).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서울: 까치글방.
- Deeba, F., Rapee, R. M., & Prvan T. (201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hildren's Revised Impact of Events Scale (CRIES) with Bangladesh children and adolescents. *PeerJ* 2:e536.
- Doyle, K., & Magor-Blatch, L. E. (2017). "Even adults need to play": Sandplay therapy with an adult survivor of childhood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6(1), 12-22.
- Ehnholt, K. A., & Yule, W. (2006). Practitioner review: Assessment and treatment of refuge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war related traum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2), 1197-1210.
- Eth, S. (2001). *Introduction: Childhood trauma in perspective*. In S Eth (Ed.), PTSD in children and

-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Equal Rights Trust. (2010). *Trapped in a cycle of flight: Stateless Rohingya in Malaysia*. London: The Equal Rights Trust.
- Fazel, M., & Stein, A. (2002). The mental health of refugee children.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7(5), 366-370.
- Gil, E. (2006). *Helping abused and traumatized children: Integrating directive and nondirective approaches*. New York: Guilford Press.
- Human Right Watch (2013). "Burma: Rohingya Muslims Face Humanitarian Crisis". Retrieved from <https://www.hrw.org/news/2013/03/26/burma-rohingya-muslims-face-humanitarian-crisis> (accessed 06, Oct 2017).
- Levin, P. A. (2008). *Healing trauma: A pioneering program for restoring the wisdom of your body*. Cal-Berkeley: North Atlantic Books.
- Maharatta, K., Samuel, R., Sharma, P., Dixit, L., & Shrestha, B. R. (2017). Suicide burden and prevention in Nepal: The need for a national strategy. *WHO South-East Asia journal of Public Health*, 6(1), 45-49.
- Mancia, M. (2007). *Feeling the words: Neuropsychanalytic understanding of memory and the unconscious*. London/New York: Routledge.
- Malchiodi, C. (2003). *Effective practice with traumatized children: Ethics, evidence, and cultural sensitivity*. In C. Malchiodi (Ed.), *Creative interventions with traumatized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Maršanić, V. B., Franić, T., & Ćurković, K. D. (2017). Mental health issues of refugee children: lessons from Croatia.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6(3), 377-381.
- Ogden, P., Minton, K., & Pain, C. (2006). *Trauma and the Body: A sensorimotor approach to psychotherap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Panter-Brick, C., Grimon, MP., & Eggerman, M. (2014). Caregiver-Child mental health: A prospective study in conflict and refugee setting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5(4), 313-327.
- Sharma, P. P., Jha, A. K., Joshi, A., & Lamsal, R. (2010). Mass hysteria and adolescent girl: An interventional study. *Nep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5(1), 17-20.
- Strekalova, E. & Hoot, J. L. (2008). What is special about special needs of refugee children?: Guidelines for teachers. *Multicultural Education*, 16(1), 21-24.
- Thabet, A. A. M., Abed, Y., & Vostanis, P. (2004). Comorbidity of PTSD and depression among refugee children during war confli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3), 533-542.
- Ugurlu, N., Akca, L., & Acarturk, C. (2016). An art therapy intervention for symptoms of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Vol.9 No.1.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Syrian refugee children.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1(2), 89-102.

UNHCR (2016). Global Report 2016. UNHCR

Wirtz, U. (2009). *The symbolic dimension in trauma therapy*. In M. Stein (Ed.), *Symbolic Life*, (pp. 25-52). New Orleans/Los Angeles: Spring Journal.

투고일 : 2018. 04. 30
수정일 : 2018. 06. 15
게재확정일 : 2018. 06. 18